

# 수요 인터뷰

## “부산 광주에도 佛音전달 큰 기쁨”



—지난 8일 부산과 광주에서 불교방송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늦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교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가 크셨는데 두 지역의 개교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바쁜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방송의 지방국이 부산과

광주입니다.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어떠한 협조 속에서 매체포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불교라는 한 물에 들어있는 양팔과 같다고 봅니다. CATV는 시청자들의 안방에까지 들어가 현장감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리라 봅니다. 라디오도 그 나름의 특성이

☆☆☆☆☆☆☆☆☆☆☆☆☆☆

### 불교방송 이사장

## 종하스님

☆☆☆☆☆☆☆☆☆☆☆☆☆☆

광주에 설립된 것은 선거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원래는 대구와 청주에도 지방국을 허락하기로 공약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계속해서 많은 곳에 지국

있습니다. 즉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CATV보다 라디오를 청취하기가 훨씬 쉽지요. 따라서 각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포교효과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하

## 전국 곳곳 방송추진 위한 범종단 지원 급선무

이나 승신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종단적으로 많은 후원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윤리성 회복에 주력

부산과 광주에 지국이 설치되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재)불교방송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사 1법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지방무선국허기(93.12.2) 후원을 불교방송법안으로 했습니다. 이에 제11차 불교방송이사회(93.12.23)에서 지방국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위임안이 가결되었고, 제12차(94.2.25)이사회에서 지방국 운영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과 광주지역의 4부대중들이 단결하여 뜻 깊은 성도회에 시험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월1일이 되면 정식으로 첫 전파를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어리 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건구해 마지 않습니다.

—매달취 불교TV도 시험방송에 들어갔

고, 때로는 선외의 경쟁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비판입니다만 불교계를 대변하는 일간지가 탄생하여 라디오·TV와 정립할 수 있다면 불교계 매체포교가 한층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라디오나 TV나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방송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이란 시청자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이 사회를 위해 방송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살펴서 그에 부응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주저않은 윤리성을 회복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불교의 주인공이 청소년이란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발을 개발하는 일에도 더욱 매진하여 누구나 듣고 편안하며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교방송의 사명을 원만히 완수하

기 위해서는 무수한 인자의 활공과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교방송이 인적자원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사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통일운동에도 나서야

▲회사경영은 사장의 책임이므로 본인이 맡아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재를 양성하여 잘 활용할 때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발전하리라 봅니다. 아쉽게도 그동안 교계에서는 전문 방송인론인을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인론에 종사하는 불교신자나 불교방송의 개국 이후 양성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불교TV의 개국이나 인본시장의 확대에 인하여 불교방송에서 일하던 많은 전문인력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교방송도 인력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송연맹의 전반적 현상입니다. 불교방송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재의 사장께서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에 대한 방송문제도 현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라 봅니다. 특히 불교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방송은 이제 다섯살 밖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내실을 다지기에 급급했으며, 앞으로는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며, 북한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부처님의 맑고 향기로운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념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산과 광주에 지방국이 설치되었고, 점차 전국 어느 곳에서든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의 불교방송 영역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방송이 날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 나의 수행일기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에게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유정, 무정의 일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성구를 가슴깊이 되새겨 이제는 생활신조가 되자고 하고 있다.

서울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도봉산, 삼각산, 북한산의 아랫 마을인 창동이라는 곳이나의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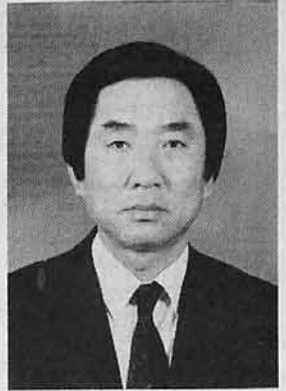
회계사, 망월사, 천축사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찰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다녔던 사찰은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도선사였다.

종가집이며 대대로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는 덕분으로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절을 찾게 되었고, 합장하는 것과 부처님께 반야심경등의 염불공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으며 불자로서 성장하는데 충분했다.

그러나 6.25의 비극은 우리 집안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던 말형(중손)이 학도병에 자원하여 전역터에 나가게 되었고 끝내는 도선사 바로 아래 산턱에서 충실한 시인으로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온집안 식구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토록 무사건강을 빌었던건 이렇게 엄청난 현실이

한규만 <동방발전 대표이사>



이런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지주 절을 찾게 되었으며 다시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동기는 뒤늦게 다니게 된 대학원에서 (주)전영업상회 회장님과 불자로서의 만남이었다.

특히 85년 여름 조계사 동산반야회에서 주최한 불교교양대학에서 무진장스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불법의 세계를 접하는데 충분했다. 하루하루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배우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이 절로 되었고 본래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환희심이 일어났다.

사람들 누구나 고향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 어릴적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고향, 부모형제가 함께 동고동락하던 고향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 “남 위해 살자” 현장포교에 주력

눈앞에 다가오고 나니 모진게서서 총격과 슬픔을 참지 못하고 마친내 증명을 얻어 오랫동안 병고로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슬픔과 충격 그리고 기우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지할 곳 마저 없게 된 나는 실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못하게 되어 홀몸단신으로 생계를 감당하게 되었고 힘들고 외로운 고학생들이 시작되었다. 힘든 생활전선에서 배고픔과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나는 자연히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많이 생겼고 종교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불도의 연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관세음보살같은 아내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신앙이란 인연이 있고, 때가 있는 모양이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인지 신앙심은 아내를 만났으니 말이다. 그리고 전폭적인 믿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아내와의 인연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부처님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고 신앙의 삶도 찾게 되었다.

깨끗하지 않은 진흙속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수많은 인고의 생활발에 다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보니 그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러한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해 늘상 번뇌의 수레바퀴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뇨?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히 실천할때 이른바 '피안의 고향'을 찾게 되고 본래 자신의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피안의 고향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본격적인 불발공부를 하던중 86년 군 불교진흥회 간사장직을 맡으면서 점차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불법의 세계로 다가서게 되었다.

전·후방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복자를 위한 포교사업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나마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지 벌써 8년째이다.

장병불자의 대다수가 군에와서 불교를 처음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군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군포교를 담당하는 군승법사를 지원하고 불교진흥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전법도생에 목욕을 두고 8번의 부처님 말씀을 익히고 대중과 함께 살면서 대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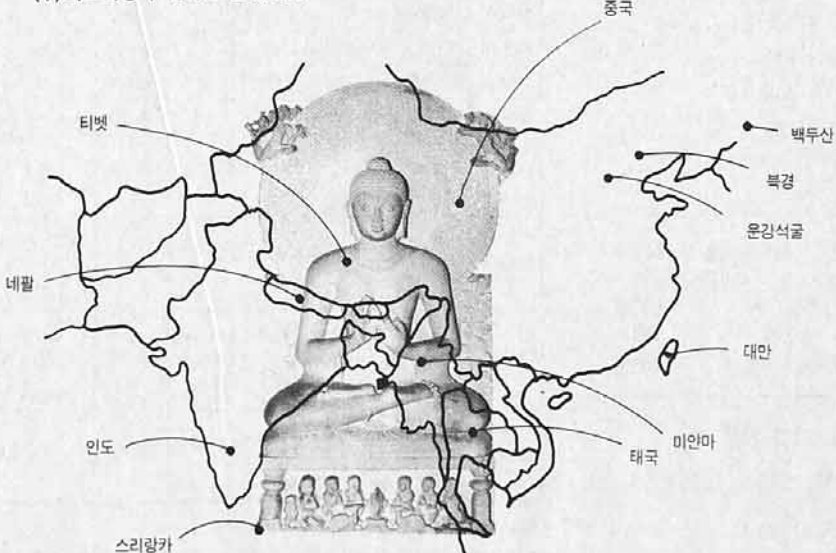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포교의 현장에서 불자들이 항상 함께 할것과 남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불제자가 되기 위해 부처님께 두손을 모아본다.

# 불교성지순례

###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헤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창



###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 2월 12일 ·동참금: 215만원  
·일정: 서울-델리-력나우-발람푸르-롬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산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블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 스리랑카 6일

·출발: 2월 10, 24일 ·동참금: 10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블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 3월 2일 ·동참금: 165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위성-롬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 와이엠부트)-방콕(세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 인도네시아 5일

·출발: 2월 19일 ·동참금: 8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 대만 5일

·출발: 2월 20일 ·동참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베이-고웅-화련-타이베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수송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